

日 本 紀 行

大韓電氣協會 幹事 太 仁 善

日本電氣協會의 招請을 받아 日本國 北海道 札幌(Sapporo)市에서 開催된 第47回 通常總會에 朴英俊 會長, 成瑣鏞 常任理事, 洪鍾翼 事務局長 세분을 모시고 參席할 機會를 가졌다.

1921年 10月에 當時 東京, 大阪, 福岡에 存在하던 3個의 電氣協會가 合併되어 全國的 單一組織으로서 設立된 것이 오늘의 日本電氣協會인데 同協會의 總會는 定款上 通常總會(年 1回)와 臨時總會의 두가지가 있음은 우리와 같다.

日本電氣協會의 總會 47回의 歷史를 훑어보면 戰前에는 大概 東京과 大阪에서 많이 開催되었고 戰後에도 第33회가 大阪에서, 第35회가 名古屋에서 開催된 것을 除外하고는 第38回까지 繼續 東京에서만 開催되어 왔다(臨時總會 都合 14回는 모두 東京 開催). 1959年의 第38回 總會에서 앞으로는 隔年으로 地方에서 通常總會를 開催하기로 決議되어 以後 廣島(第39回), 仙台(第41回), 金澤(第43回), 高松(第45回)를 거쳐 今年에는 第47回 通常總會가 北海道의 道都인 札幌市에서 開催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總 會>

日本 全國에서 參席한 千餘名의 電氣인이 一堂에 모인 日本電氣協會 第47回 通常總會는 6月 18日 午後 1時半에 札幌市民會館에서 그 幕을 올렸다.

이에 앞서 우리 一行은 札幌그랜드·호텔에서 特別히 外國來賓을 爲하여 마련된 午餐會에 參席하였다. 日本電氣協會 副會長이며 四國電力會社 會長인 中川(M. Nakagawa)氏, 海外電力調査會 會長이며 日本電力調査委員會 委員長인 高井(R. Takai)氏, 日本電氣協會 顧問이며 電源開發會社 總裁인 藤波(O. Fujinami)氏, 그리고 前 日本電氣協會 專務理事이며 現 動力爐核燃料開發事業團理事인 瀨川(M. Segawa)氏가 우리와 자리를 같이하였으며 別室에서 理事會·評議員會 合同會議을 主宰하던 日本電氣協會 會長(動力爐核燃料開發事業團 理事長·中部電力會社 會長)인 井上(G. Inoue)氏도 나중에 合流하였다.

井上, 高井 兩氏는 우리 朴會長과는 에디슨誕生日 記念祝典, 世界動力會議, EEI 總會 등에서 舊面의 사이에서 談笑의 話題가 豊富하였다. 韓國電

氣事業의 現況과 開發計劃, 韓國의 世界動力會議 加入問題, 韓國에서의 에디슨誕生日 記念祝典 開催問題(1970年) 등에 關하여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中에 어느덧 時間이 되어 總會場으로 案内되었다.

× × × × ×

壇上에 向하여 左側에 日本電氣協會 會長團과 執行部, 右側에 政府代表, 外國來賓, 會員電力會社 會長, 社長들이 자리를 잡자 正刻 午後 1時半, 日本電氣協會 總務部長 鈴木(Y. Suzuki)氏의 開會宣言에 이어 北海道電氣協會 會長이며 北海道電力會社 會長인 岡松(S. Okamatsu)氏의 歡迎辭와 協會長 井上氏의 人事가 있는 다음 議事에 들어갔다.

議案은 恒例와 같이 ① 前年度 會務報告의 件 ② 前年度 決算報告의 件 ③ 評議員補缺選舉의 件의 順序로 附議되었는데 約 40分 程度의 時間에 一瀉千里로 끝이 났다. 執行部에 依하여 周到綿密하게 作成된 總會附議議案은 總會에 앞서 開催되었던 理事會·評議員會 合同會議에서 充分히 檢討되었으며 總會에서의 通過는 單只 要式行爲에 不過하다고 한다.

談事が 끝나고 通商産業省 公益事業局 技術長 藤井(T. Fujii)氏が 通産大臣의 祝辭을 代讀하고 이어서 오늘날의 唯一한 外國賓客인 우리 大韓電氣協會 朴會長으로부터 日本의 電氣事業과 電氣協會의 發展을 祝賀하고 우리나라의 電氣事業의 現況과 計劃의 概要를 紹介하는 人事말(別掲 p. 22)이 있었고 이것을 筆者가 日本語로 通譯하였다.

電氣事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國家나 民族은 달리 할망정 人類가 安樂하고 幸福한 生活을 營爲하는 데 必須不可缺한 電力이라는 原動力을 供給하는 에너지事業에 獻身하고 있다는 點에서 基本的인 共通點을 가지고 있음을 指摘하고 兩國 電氣界의 繼續的인 紐帶強化와 親善增進을 希望한 朴會長의 人事에 對하여 日本의 電氣人들은 뜨거운 拍手을 보내어 주었다. 朴會長의 뒤를 이은 琉球電力公社 總裁 屋田(J. Yada)氏의 人事를 끝으로 總會는 暫時 休會에 들어갔다.

× × × × ×

다음 順序로는 郷土史研究家 元木(S. Motoki)氏가 『函館戰爭秘話』라는 演題로 約 50分間 講演을 하였다. 今年이 마침 北海道의 開島 100年에 該當하는 해이고 明治維新(1868年) 即後 原住民인 아이누人만이 살고 있던 北邊의 未開地 北海道의 開拓을 爲하여 內地사람들이 비로소 건너오기 始作하였을

當時의 史話인지라 千餘名의 聽衆들은 매우 靜肅하고 그리고 興味깊게 傾聽하고 있음을 볼수 있었다.

× × × × ×

이어서 華麗한 舞臺裝置와 타이밍 좋은 스포트照明 아래서 郷土藝能 일곱가지가 披露되었다. 스마아트한 NHK 아나운서와 戰前에 이름을 날렸다는 女俳優와의 洗練된 司會로 約 1時間 동안 進行된 이 노래와 춤의 饗宴은 新開拓地 北海道의 強烈한 郷土色이 물씬 풍기는 風趣있는 것으로서 內地에서 온 遠來의 會員 뿐만 아니라 現地の 會員들도 아낌없는 拍手을 보내는 盛況이었다. 特히 『祝 日本電氣協會 總會』의 9文字에다 日本電氣協會 및 北海道電力會社の 마아크를 것드린 11個의 金色文字를 兩傘을 빙빙 돌리면서 춤을 추던 11名의 舞姬가 夜光塗料과 스포트照明으로 한자씩 鮮明하게 그리고 正確하게 暗黑의 舞臺에 그려낸 演出은 稱讚할만한 것이었다.

<懇親會>

午後 5時 30分부터는 札幌그랜드·호텔에서 懇親會가 열렸다. 1年에 한번씩 한자리에 모이는 全國의 電氣人이 舊情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健闘를 서로 祝願한다는 이 맘모스 파티에는 北海道 知事, 札幌 市長, 北海道商工會議所 會頭 等도 나와서 鄭重



<朴英俊 大韓電氣協會 會長의 人事>

한 祝辭를 말하고 있었다. 千餘名의 參集者 以外에 기모노 또는 洋服차림의 호스데스까지 相當數 動員된 이날의 懇親會는 아마도 札幌市 初有의 大規模 파이티일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研究會>

總會行事 第2日인 19日에는 2個 建物, 8個 會場에서 研究會가 午前 9時부터 午後 5時까지 進行되었다. 各 會場에서는 2名의 司會者가 午前, 午後를 分擔하여 研究會를 進行시키고 있었는데 大體로 會社 部次長級, 官廳 局課長級, 大學 教授級이 많았고 會場에는 數十名 또는 百名 程度의 人員이 研究發表者의 說明을 傾聽하고 있었다. 聽講者로는 會社員 또는 學生風의 靑壯年層이 많았으나 間或 60代, 70代의 白髮이 熱心히 說明을 듣고 있는 모습은 印象的인 風景이었다.

247名의 研究結果인 123篇을 集錄한 『研究會講演論文集』은 46倍版에 7포 乃至 9포 活字 크기의 活版, 孔版 또는 筆耕寫眞版 組版으로 本文만 261面에 達하는 龐大한 것이었다. 關係者의 말에 依하면 日本 電氣協會 總會行事에서 매우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 이 研究發表會에 對한 會員들의 參加申請이 해를 거듭할수록 激增하고 있어 證衡을 證衡을 거듭하여 嚴選된 것이 오늘 發表된 123篇이라는 것이고 時間關係로 發表時間도 不得已 1人當 20分 程度로 制限하고 있는 實情이라고 한다.

各會場別 研究主題 및 發表件數를 表示하면 아래와 같다.

第1會場: 電氣事業關係 一般 및 電力部門에 있어서의 電子計算裝置의 應用에 關한 研究(16件)

第2會場: 發電(火力·原子力·水力) 및 變電關係에 關한 研究(18件)

第3會場: 送電, 給電 및 通信關係에 關한 研究(18件)

第4會場: 配電關係에 關한 研究(13件)

第5會場: 電氣機器, 産業用機器 및 材料關係에 關한 研究(18件)

第6會場: 電線關係에 關한 研究(14件)

第7會場: 電力使用關係 및 電氣鐵道事業關係에 關한 研究(13件)

第8會場: 電氣計測關係에 關한 研究(13件)

<全國電氣人골프大會>

이날 研究會와 併行하여 한편으로는 第12回 全國電氣人골프大會가 札幌市 郊外의 골프場에서 開催되어 百數十名의 골프愛好會員이 參加하였다고 하는데 遺憾스럽게도 그 實況은 보지를 못하였다.

<見學會>

總會行事 第3日제인 20日부터는 各自 希望에 따라 自由로이 코오스를 選擇할 수 있는 當日歸還, 1泊2日, 2泊3日의 見學會가 5個班에 나누어 廣大한 北海道 全域에 걸쳐 實施되었다.

面積 78,509km²(南韓의 面積 98,477km²에서 慶尙北道를 뺀 넓이이며 日本의 總面積 約 369,000km²의 21.2%에 該當한다.), 人口 約 530萬의 北海道는 緯度로 보면 大體로 北緯 42°~45°에 位置하고 있으며 札幌市는 우리 韓半島의 北端과 꼭 같은 43°1' 線上에 位置하고 있다. 따라서 日本의 餘多地方과는 그 氣候風土가 判異하고 廣濶한 平野, 鬱蒼한 原始林, 秀麗한 火山湖와 豊富한 溫泉, 減少一路에 있어 特別保護를 받고 있는 原住民 아이누人 등을 찾는 日本內地로부터의 旅行者가 가장 많이 모이는 時期가 바로 6月이라고 한다. 東京의 梅雨期의 高溫多濕型 氣候를 거쳐온 이 遠路의 나그네에게는 여기도 같은 日本땅이던가 싶으리만큼 北海道의 氣候는 선선하고 爽快하였다.

매마침 北海道開島 100年을 記念하는 北海道博覽會와 全國菓子博覽會 等 大規模의 行事가 여러가지 札幌市에서 열리고 있어 今年에는 特別 內地로부터의 觀光客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6月 한달에만 그 數가 100萬名을 突破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東京의 羽田(Haneda)空港에서 札幌의 千歲(Chitose)空港까지 大型제트機 便만도 1日 16往復이 있으며 每便 거의 滿員狀態라는 것도 首肯이 가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東京-札幌間 約 1,200 km을 汽車와 連絡船便으로 가던 特急으로도 20時間 가까이 걸리니(제트機로는 滯空時間 1時間 10분에 飛行場 나가고 들어오는 時間을 合하여도 3時間餘면 足함) 北海道는 果然 멀고도 가기힘든 고장이 아닐 수 없다.

却說 20日에는 洪事務局長과 筆者 2人은 北海道 電力會社 秘書課員 吉田(K. Yoshida)氏의 細心하고 도 禮儀바른 案内를 받으며 洞爺湖(Toyako)라는

곳으로 車를 달렸다. 北海道의 數 많은 國立, 國定 公園 中에서도 이곳은 周圍 百里의 湖水 中央에 4個의 섬이 도우넛 模樣으로 웅기증기 모여있는 湖水의 絶景과 温泉, 그리고 1943년에 突然 어떤 平和스럽던 農場의 地殼이 입을 열고 불을 내뿜으며 突出한 이름지어 『昭和新山』이라고 하는 조그만 火山으로 有名하여 觀光客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아이누人を 綿密히 觀察하고 이야기를 나눌 機會를 가졌으며 다른 便으로 와서 같은 호텔에 묵게 된 前記한 高井 海外電力調査會 會長과 食事を 같이하면서 여러가지 關心事에 關하여 高見를 듣고 東京에서의 再會를 約束받은 것은 큰 收獲이었다.

21日에는 吉田氏의 提議로 洞爺湖를 모오터·보오트로 달려보았다. 投身者가 女子일 경우에는 반드시 떠오르지만 男子는 水中의 女神이 놓아주지 않아 絶對로 屍體를 찾지 못한다는 傳說이 얽힌 이 맑고 깊은 湖水는 湖畔의 호텔建物群과 미끈한 道路들과 더불어 絶景을 이루고 있었으나 보오트의 快速이 이끄는 바람이 어찌나 차가운지 毛布로 몸을 둘러싸도 견딜 수가 없어 그만 豫定보다 덜 들고 갯머리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21日 午後 吉田氏와 作別을 告하고 兩行特急列車에 몸을 실음으로써 이번 旅行의 主要目的인 日本 電氣協會 第47回 通常總會 參席은 그 任務를 다한 셈이다.

× × × × ×

日本電氣協會의 通常總會는 定款上 規定된 會議 案件을 處理하는 以外에 全國의 電氣關係 重鎮級 및 中堅級 人士 多數가 한날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즐기는 絶好의 機會를 提供하고 있는 重要한 모임이라고 보았다. 또한 會員會社의 實務者들이 平素에 自己가 맡은 分野에서 工夫하고 研究한 알찬 結果를 全體會員에게 널리 發表할 機會를 주는 研究會制度는 그 存在價値가 높히 評價되어야 할 것이며 見學會는 會員들이 奔忙한 日常業務에 쫓겨 좀처럼 가보지 못하는 全國 各地의 名勝地나 産業施設을 見學할 수 있는 좋은 機會가 되고 있다고 보았다.

隔年制 地方開催 또한 妙味가 있다. 이번에 日本 內地에서 北海道에 모인 約 千名의 會員中 相當數가 北海道가 처음이거나 또는 終戰後에는 처음인 사람들일 것이라고 한다. 地方開催地가 決定되면

(1970년에는 九州의 福岡市에서 開催할 것이 이미 決定되어 있다) 現地의 電力會社는 바로 그 準備基礎作業에 着手하리만큼 各 會員會社의 參與意識이 높다고 한다. 다른 地域의 電力會社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競争意識마저 없지 않다고 한다. 北海道電力會社의 경우 北海道에서는 歷史上 처음 열리는 今年의 通常總會를 爲하여 일찍부터 『總會行事協力本部』를 設置하고 岩本社長 自身이 本部長에 就任, 常務 한분이 實行委員長이 되어 細心한 準備를 進行하여 總會를 맞이하였다고 한다. 東京의 電氣協會本部 關係者들은 數三次 往來하여 基本計劃을 討議하고 準備狀況을 點檢하였을 程度로 모든 일은 北海道電力이 自己自身の 일로 알고 準備를 進行하였다고 한다.

懇談會, 研究會, 골프大會, 見學會 등은 貴賓을 除外하고는 모두 實費會費制라고는 하나 同社의 經費面의 負擔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行事가 進行되는 동안 北海道電力本社 役職員 거의 全員이 『誠心誠意로써 接待하자』라는 社長의 特別指示를 받들고 千餘名의 大人員이 움직이는 會場·宿所, 見學地 등에 動員되어 正確하고 圓滑한 行事 進行을 爲하여 自己任務를 忠實히 다하고 있는 모습은 흐뭇하고도 印象的인 光景이었다.

× × × × ×

北海道와 本州를 잇는 8,000噸級 連絡船에서 北 極 바다의 저녁노을을 鑑賞하고 全車輻輳台 特急列車에서 異國의 밤을 또한밤 보내고 이튿날 아침 東京에 到着하였다.

싱겁기 짝이없는 제트機旅行 代身 時間은 훨씬 더 길렸으나 日本列島 東半部를 汽車로 縱斷해 보나 見聞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 × × ×

東京에서는 日本電氣協會, 에디슨彰德會, 海外電力調査會, 日本電力調査委員會, 中央電力協議會, 電氣事業連合會, 電力中央研究所 등의 組織과 事業을 알아보고 參考資料를 蒐集하는데 數日間을 消費하였다. 上記한 日本의 電氣關係 諸團體中 日本電氣協會, 에디슨彰德會, 海外電力調査會와 우리 協會와는 從前에도 相當히 密接한 關係가 있었으나 餘他 團體에 關하여서는 이번에 비로소 情報를 蒐集한 셈이다. 各 團體의 重要 데이터를 摘記하면 아래와 같다.

〈日本電氣協會〉

〔住所〕東京都千代田區有樂町1의3
(電氣協會빌딩)

〔役員〕

會長 井上五郎(中部電力會社 會長)
副會長 中川 以良(四國電力會社 會長)
平井 寬一郎(東北電力會社 社長)
大久保 謙(三菱電機會社 社長)

評議員互選理事 24名

號事 9名

評議員 219名(評議員互選理事 24名 包含)

〔會員〕(1967年末 現在)

地區名	會員	名譽會員	特別會員	通常會員		計
				通常會員	推薦會員	
北海道			115	53	43	211
東北			97	169	35	301
關東	4		230	598	41	873
中部			198	125	78	401
北陸			102	164	45	311
關西	1		843	58	70	972
中國			89	257	50	396
四國			75	168	15	258
九州			161	215	53	429
沖繩			1			1
計	5	1,911	1,807	430		4,153

〔事業〕

1. 行事
2. 調査研究
3. P R活動
4. 出版
5. 表彰
6. 教育
7. 新聞
8. 高壓電氣工事技術者試驗

〔財政〕1967年度 收支決算書에서 보면 收入과 支出이 476,698,108圓의 規模인데 收入에 있어서는 業務收入이 4億1,575萬圓으로 壓倒的인 比重이고 會費收入 4,234萬圓, 雜收入 1,099萬圓 등으로 되어 있으며 支出에 있어서는 業務經費 2億9,423萬圓, 給料諸給 1億3,907萬圓, 地方協會配分金 2,929萬圓 등의 順序이다.

〔職員〕本部職員 約 170名中 日刊「電氣新聞」關係者가 約 100名이고 會員電力會社에서 派遣된 職員이 6, 7名 있다.

× × × × ×

日本電氣協會는 月刊雜誌 3種을 定期刊行하는 以外에 1967年度에만 20種의 單行本을 刊行하였다. 이번 에 이들 單行本은 勿論이고 過去에 刊行된 單行本까지도 絶版되지 않고 在庫가 있는 것은 모두 1部씩 寄贈을 받았으며 앞으로는 모든 刊行物을 나오는 대로 滯滯없이 보내주겠다는 約束을 받았다. 于先 여기서 日本電氣協會의 厚誼와公私間에 모든 親切을 야기지 않았던 總務部長 鈴木 陽氏에 對하여 感謝의 뜻을 表한다.

〈에디슨彰德會〉

從來 있던 同名の『에디슨彰德會』를 發展的으로 解散하고 全國的인 規模로 活動을 強化하기 爲하여 組織改編을 斷行하여 昨年 9月 26日에 誕生한 것이 오늘의 에디슨彰德會이다. 理事長은 日本電氣協會 會長 井上五郎氏이고 20餘名の 理事陣에는 9個 電力會社의 社長 全員과 東芝, 日立, 三菱, 松下, 富士 等 電機製造業 主要會社의 社長들이 網羅되어 있고 事務所는 日本電氣協會 안에 두고 있다.

이 會의 目的은 發明王 토마스·앨바·에디슨의 功績을 讚揚하고 科學技術의 振興을 爲하여 特히 靑少年에 對한 科學思想의 普及啓發에 寄與하는데 있으며 그 事業은 아래와 같다.

1. 에디슨彰德記念碑(京都府 八幡町 所在)의 維持整備
2. 美國의 토마스·앨바·에디슨財團과의 密接한 紐帶維持
3. 에디슨誕生日記念祝典 其他 關係行事의 開催
4. 에디슨에 關한 諸資料의 蒐集保存
5. 에디슨에 關한 出版物 其他 科學技術에 關한 出版物의 刊行
6. 靑少年에 對한 科學思想의 啓發普及
7. 其他 必要한 事業

× × × × ×

1970年 우리나라에서 第14回 國際에디슨誕生日記念祝典(IEBC)를 開催하는 경우 크게 도움이 될 參考資料 一輯을 一番番號까지 붙여 미리 準備하여 筆者를 기다리고 있던 品位있는 老紳士 鈴木 清太郎(S. Suzuki)氏의 親切한 說明으로 日本에서 主催

한 第 8 回 祝典의 準備過程과 進行狀況을 大體로 把握할 수 있었다.

〈海外電力調査會〉

〔住 所〕 東京都 港區 新橋 1丁目 1—13
(東電舊館 內)

〔設 立〕 1958年 5月 1日

〔會 員〕 9個 電力會社 및 電源開發株式會社

〔會 長〕 高井 亮太郎

〔常勤役員〕 3名

〔事務局〕 總務部 10名 (1名)
 調査統計部 29名 (18名)
 開發協力部 3名 (1名)
 計 42名 (20名)

註: () 內는 會員會社로부터의 派遣職員數 그 內는 東京電力 6名, 關西電力 3名, 電源開發 2名, 北海道電力 2名, 九州電力 2名, 東北, 中部, 北陸, 中國, 四國 各 電力 1名.

〔目的〕 海外에 있어서의 電氣事業의 實情을 調査함으로써 日本電氣事業의 運營에 貢獻함과 同時에 政府가 計劃하는 海外의 電源開發의 基礎調査에 對하여 技術協力を 行함으로써 經濟協力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事業〕 1967年度 事業報告에서 보면 아래와 같다.

I. 調査統計業務

1. 海外電氣事業에 關한 主要 調査事項

- ① 歐洲 主要國에 있어서의 尖頭負荷에 對한 合理的 供給對策에 關한 調査(研究員 1名 派遣)
- ② 英國 및 프랑스의 電氣事業의 人事管理, 能力開發, 社內教育訓練에 關한 調査(研究員 英國 1名, 프랑스 2名, 計 3名 派遣)
- ③ 美國 電氣事業의 販賣促進活動과 需用家에서 비스 等に 關한 調査(研究員 1名 派遣)
- ④ 美國에 있어서의 都市化와 이에 따르는 營業, 配電問題에 關한 調査(研究員 1名 派遣)
- ⑤ 美國 및 캐나다의 電氣事業에 있어서의 電子 計算機의 利用의 現狀과 그 將來에 關한 調査(研究員 1名 派遣)
- ⑥ 美國에 있어서의 電氣料金の 現狀에 關한 調査(研究員 1名 派遣)
- ⑦ 라틴·아메리카諸國의 電氣事業의 現狀과 開發計劃에 關한 調査(研究員 1名 派遣)
- ⑧ 超長期展望에 關聯되는 諸外國의 事情調査

2. 資料業務 其他

- ① 月刊誌「海外電力」의 發行
- ② 「海外電氣事業統計」1967年版의 刊行
- ③ 「Electric Power Industry in Japan」1967年 版의 刊行
- ④ 調査資料 및 海外電力資料의 作成
- ⑤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및 ECAFE(國聯아 시아極東經濟委員會)에 提出하는 日本의 電氣 關係 資料의 作成
- ⑥ ECAFE 및 UCLA(國聯라틴·아메리카經濟委 員會)의 電力세미나에 對한 協力
- ⑦ 歐美 主要國의 國際空港 電力設備에 關한 調査
- ⑧ 當會 會長의 CIGRE(國際大送電網會議)理事會 出席
- ⑨ 講演會의 開催

II. 開發協力業務

1. 뉴우기니아電力市場 調査
2. 中南美諸國에 있어서의 日本人移住地電化計劃 調査
3. 海外로부터의 技術者의 招聘 및 技術研修生의 受入業務
 - ① 말라가시共和國 鑛工業省 水에너지課長 招聘
 - ② 브라질共和國 中央電力公社 技術顧問 招聘
 - ③ 海外技術研修生의 受入
 - ④ 멕시코로부터 來日한 周波數調査團에 對한 協力
4. 프랑스電力公社(EDF)와의 技術研修生의 交換

× × × × ×

本 調査會가 設立되기 前까지는 日本의 電力會社 는 海外資料가 必要할 때에는 個別的으로 外國의 電氣事業體와 接觸하는 實情이었으나 日本의 電氣 事業이 急速한 發展을 거듭하고 基幹産業으로서의 重要性이 더욱 커짐에 따라 海外電力調査를 單一차 념을 通하여 組織의으로 推進하여야만 되겠다는데 意見의 一致를 본 日本의 모든 電力會社가 10年前 에 設立한 것이 바로 이 海外電力調査會인 것이다.

會長 高井氏는 體軀는 크지 않으나 그 健康이나 精力이 70을 넘은 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程度로 활동한 분이로서 筆者와 對談하는 사이에도 CIGRE, World Power Conference(世界動力會議)等 關係로 電話가 걸려온데 對하여 簡潔明瞭하게 對答하고 指示하는 품이 果然 一國 電氣事業界의 指導級 人士

답다고 느꼈다.

<日本電力調査委員會>

6月 24日 約 2時間半에 걸쳐 第一호텔에서 開催된 日本電力調査委員會 會議 및 午餐會에 委員長 高井氏(海外電力調査會 會長)의 好意로 參席할 機會를 가졌다.

이 委員會는 9個 電力會社 및 電源開發會社를 비롯하여 主要 電機製造會社의 社長들, 東京都와 2個 縣의 知事들, 日本國鐵 總裁, 東大 名譽教授 1名 등이 委員으로 되어 있고 委員長은 前記한 高井氏, 副委員長은 東芝 社長 土光氏이다. 또한 通產省 3名, 經濟企劃廳 1名, 電氣事業連合會 1名, 電機工業會 1名 都合 6名の 參與가 있고 電力 및 機械 2個 專門委員會에 委員 各 17名씩과 參與 3名이 있으며 事務局에는 20名の 人員이 있는데 局長은 海外電力調査會 事務局長 上島氏가 兼하고 있었다.

約 40名이 參席한 이날의 會議는 第32回 日本電力調査報告書(案)을 採擇하는 重要한 모임으로서 2個 專門委員會 委員長과 事務局次長이 印刷配付된 案의 骨子を 說明하고 委員會가 이를 滿場一致로 採擇하는데 約 1時間半이 걸렸다. 實務者들이 數個月에 걸쳐 調査하고 다듬고 간추려서 委員會에 附議된 案인만큼 길지않은 說明으로도 要點을 把握할 수 있게끔 잘 整理되어 있었다.

報告書의 內容은 第1部 「電力의 需給」과 第2部 「重電機器의 製造」로 構成되어 있는데 調査期間은 1966년부터 1972년까지의 7年間으로서 66年, 67年은 實績值이고 68年~72年은 想定值이다. 第1部에서는 電力의 需給을 ① 最大需要電力과 供給能力 ② 年間需要電力量과 年間供給電力量의 兩面에서 檢討하고 ①에 있어서는 全國 및 地域別로, ②에 있어서는 全國計로 電力需給狀況을 表示하고 第2部에서는 日本의 主要 重電機器製造業者의 1968年 4月 1日 現在의 出荷實績, 出荷豫定, 未出荷總受注量 및 將來 注文을 받을 수 있는 機器製造餘力の 豫想 등을 表示하고 있었다.

日本電力調査委員會가 發表하는 이 報告書는 日本의 電力需給 및 重電機器製造에 關한 基本綱領과도 같은 것으로서 年 2回 4月 1日 現在와 10月 1日 現在로 作成되고 있다.

委員會의 事務所는 東電舊館 內의 海外電力調査會와 같은 層에 있었는데 兩會 모두 여러個의 房마다

藏書와 印刷物이 가득 차 있어 調査業務의 據點다운 雰圍氣를 造成하고 있었다.

<中央電力協議會>

日本의 9個 電力會社와 電源開發會社는 1958年 4月에 自主經營의 原則下에서 보다넓은 視野에 立脚한 企業間의 協調를 圖謀하기 爲하여 다른 產業에서는 그 例를 찾을 수 없는 廣域運營體制를 만들었다. 即 全國을 北地域(北海道電力 管內), 東地域(東北, 東京 2個電力 管內), 中地域(中部, 北陸, 關西 3個電力 管內), 西地域(中國, 四國, 九州 3個電力 管內)의 4個 地域으로 區分하고 各地域에 電力協議會를 設置함과 同時에 東京에는 中央電力協議會(東京都 千代田區 大手町 1丁目 5-7: 經團連會館빌딩 內)를 두게 된 것이다.

以後 10年間 廣域運營으로서 큰 効果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于先 電力의 融通과 設備運用의 協調를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이 廣域의인 設備運用을 前提로 한 電源開發計劃과 送電系統擴充計劃이 10社의 協力下에 推進되었다. 그 結果로 年年 增大하는 設備資金을 合理的으로 節約하고 發電原價의 上昇을 抑制하여 料金安定化의 實을 견출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廣域運營은 技術과 資材의 面에 까지 協調의 分野를 擴大하여 着實한 成果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年表에서 廣域運營의 推移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951. 5. 1 9個電力會社 設立
- 1952. 9. 16 電源開發會社 設立
- 1952. 11. 20 電氣事業連合會 發足
- 1957. 11. 1 日本原子力發電會社 設立
- 1958. 4. 1 廣域運營 實施
- 1959. 6. 25 東地域 超高壓連繫系統 完成: 常時連繫運轉 開始
- 1960. 12. 13 中地域 超高壓連繫系統 完成: 常時連繫運轉 開始
- 1962. 3. 6 中國, 九州, 中地域 超高壓連繫系統 完成: 常時連繫運轉 開始
- 1962. 10. 15 中四幹線 完成: 四國本州系統 常時連繫運轉 開始
- 1965. 7. 1 新電氣事業法 施行: 廣域運營의 法制化
- 1965. 10. 11 佐久間周波數變換所 運轉開始:

<電氣事業連合會>

9個 電力會社와 電源開發會社 및 日本原子力發電會社의 11社가 會員으로 되어 있는 團體로서 事務所는 中央電力協會會와 같은 建物 안에 있다.

會長에는 東京電力 社長, 副會長은 中部電力, 關西電力 兩社長 外 1人이 任하고 있다.

<電力中央研究所>

財團法人 電力中央研究所는 電力再編成 以前에 日本發送電會社의 研究機關이었던 電力技術研究所가 1951年 11月 財團法人 電力技術研究所로서 獨立한 뒤를 이어 1952年 8月 새로이 經濟研究部門을 設置하여 財團法人 電力中央研究所로 改稱된 것으로서 理事長은 日本電氣事業界의 大元老인 松永安左衛門 (Y. Matsunaga) 氏가 맡고 있다.

東京都 千代田區 大手町 1丁目 4番地 大手町빌딩 內에 있는 本部 以外에 東京都內 및 千葉縣內에 研究所들이 散在해 있다.

가장 큰 研究施設인 技術研究所는 日本電氣事業의 技術面에 關한 거의 모든 分野에 걸쳐 各種의 研究, 試驗, 調查를 하고 있다. 即 펌이나 發電所의 基礎地質調査로부터 始作하여 펌의 建設, 發電所의 建設, 發送配電 等の 技術的 諸問題의 解決은 勿論이고 各種 機器, 資材의 保守, 改良에 關한 研究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研究의 內容에 있어서는 電力技術이 當面하고 있는 諸課題의 解決에 當場 所用되는 實用研究에 重點을 두고 있는 한편 電力技術을 發展시키는 基礎研究에도 注力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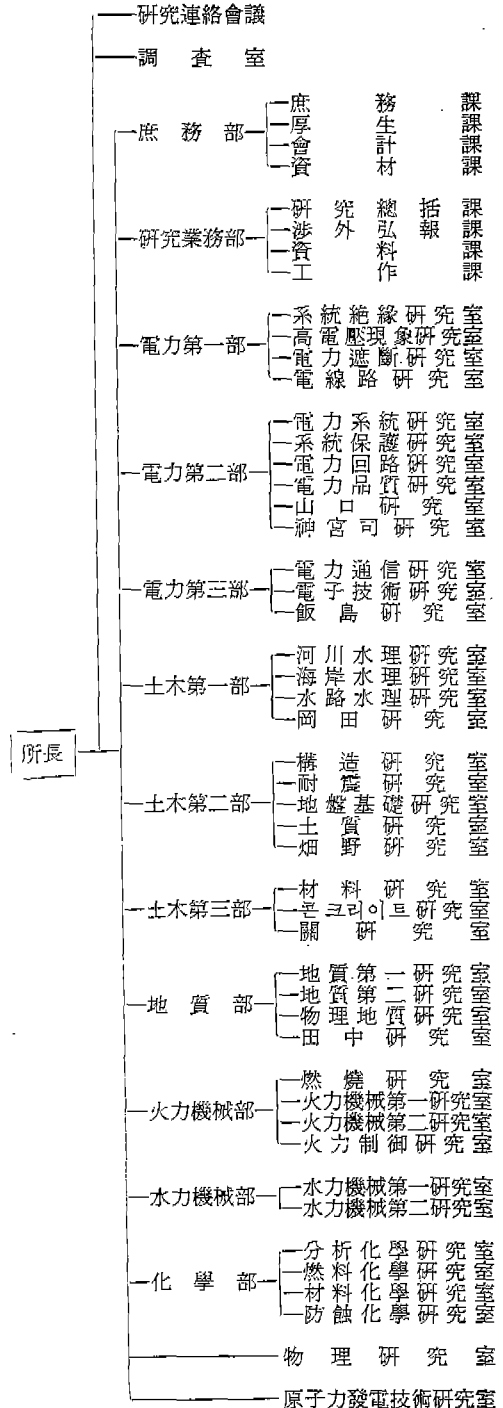
參考로 이 研究所의 機構를 摘記하면 右와 같다.

電力中央研究所는 技術研究所 以外에도 아래와 같은 主要研究 施設을 가지고 있다.

農電研究所... 農業近代化, 施設園藝, 水産·微生物, 農業經濟의 4個 研究室이 있다.

大手町研究所... 景氣變動과 電氣事業과의 關係, 企業較差, 投資效率, 水火力發電의 組合問題, 原子力發電의 開發速度와 經濟性, 燃料油, 送配電系統의 改善, 公害의 社會的, 經濟的 問題 等を 主要 研究한다.

電子計算機室... 大型 電子計算機를 使用하여 地域別 需要豫測, 送變電設備計劃, 各種 工事計劃, 經營의 綜合計劃 等の 方法論을 研究하고 또한 여기에



(共同研究班) 排가스對策共同研究班

必要한 各種 프로그램의 開發, 整備를 하고 있다.

産業計劃會議...政府의 經濟計劃에 對하여 民間의 自由로운 創意와 研究를 살려 日本産業經濟의 動向과 그 擴大의 規模에 關하여 調查研究를 하고 國民經濟 全般의 理想의 形態의 把握과 産業의 長期 展望의 確立을 그 目的으로 하여 現在까지 20회에 가까운 廣範多岐한 勸告를 公表하고 있다.

電氣事業研究委員會(省略)

送電機能研究委員會(省略)

排가스對策研究委員會(省略)

<新幹線>

東京—新大阪間 552.6 Km를 3時間 10분에 走破하는 『世界에서 第一 빠른 汽車』 新幹線 『히카리』號를 타고 大阪으로 갔다. 이 鐵道는 從前의 東海道本線과는 別途 코오스로 特殊設計에 依하여 敷設된 것으로서 1日 33往復의 『히카리』號 以外에도 東京—新大阪間을 4時間에 달리는 『고다다』號 50餘 往復이 있다.

에어콘으로 年中을 通하여 一定한 溫度를 維持하는 密閉된 客車는 日本이 世界에 자랑하는 新銳鐵道인만큼 여러모로 훌륭하였다. 土曜~月曜의 3日間은 미리 車票를 사두지 않으면 안될 程度로 사람의 往來가 많다고 하며 이 鐵道の 開設로 東京에서 아침車로 關西로 가서 終日 불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便利·쉬는 式의 當日出張이 充分히 可能하게 되었다고 한다. 東京—大阪間 제트機飛行時間 45분에 飛行場 往復時間까지 합하면 출잡이 1時間半은 보아야 하니 이 新幹線鐵道는 可謂 交通革命이 아닐 수 없다.

車中에서 사서 읽은 新聞에 新幹線이란 活字가 보여 읽어 보았다. 內容인즉 1985年度를 目標로 日本을 公營나 通勤交通地獄 및 物價上昇에서 解放된 豊饒한 國土로 만들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新全國綜合開發計劃을 檢討하고 있는 國土綜合開發審議會(首相의 諮問機關)는 6月 27日 特別部會를 열고 經濟企劃廳이 成案한 新計劃에 關하여 說明을 들었는데 그 骨子의 하나는 5兆円의 費用으로 札幌—福岡間에 新幹線鐵道와 高速道路를 만들고 東京—札幌間을 5時間 50分(現在는 19時間 25分), 東京—福岡間을 5時間 40分(現在는 12時間 15分)에 連結함으로써 札幌, 仙台, 東京, 名古屋, 大阪, 廣島, 福岡의 七大中核都市를 日本列島の 主軸으로 巨帶都市(me-

galopolis)화한다는 것이었다.

食堂車의 速度計는 208~9Km를 繼續 가리키지만 거의 振動을 느낄 수 없다.

<堺港發電所(關西電力)>

單一發電所 容量으로 東洋最大인 橫須賀火力發電所(現在 出力 193萬 Kw; 增設中인 7, 8號機가 完成되면 263萬 Kw가 될 豫定)를 見學하고 싶었으나 時間關係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代身 關西最大의 堺港(Sakaiko)火力發電所를 보기로 되었다.

大阪市 中之島에 位置한 關西電力會社를 찾으니 日本電氣協會로부터 連絡을 받아 기다리고 있었노라는 火力擔當 支配人 伊藤(K. Ito)氏와 社長室 企劃部長 出口(H. Deguchi)氏가 반갑게 맞아준다. 同社의 現況을 大綱 說明하고 火力計劃課長 島(I. Shima)氏의 案内로 堺港發電所로 向하였다.

이 發電所는 約 660萬坪에 達하는 堺·泉北臨海工業地區內의 約 22萬坪의 埜地 위에 세워진 新銳(第1號機 竣工이 1964年末)火力發電所로서 現在 容量 150萬 Kw(25萬 Kw×6基), 앞으로 2基를 더 增設하여 總容量 200萬 Kw가 될 豫定이라고 한다. 本館建物은 길이 500m(7, 8號機 完成時) 높이 47.5m, 煙突은 1~4號機用 4基가 150m, 5~6號機用 1基는 180m의 높이로 煙害防止對策으로서 煙道에 機械式集塵器를 設置한 鐵塔支持型이다. (p. 21)

보일러, 蒸氣터빈, 發電機 等 主要機器는 三菱重工業, 石川島播磨重工業, 日立製作所, 三菱電機 等 4個社의 製品이 사이종계 共存하고 있는데 보일러는 모두 重油專燒式, 屋外式으로서 構內의 巨大한 貯油탱크가 壯觀을 이루고 있었다.

從業員 2百數十名을 거느리는 發電所長 平林(Hirabayashi)氏, 次長 田邊(Tanabe)氏——戰前에 서울서 專門學校를 다닌 분으로서 무척 반가워하면서 서울의 近況을 여러가지 물어왔다——와 함께 午餐을 나눈 後 作別을 告하고 나오다가 보니 아직도 工場建設이 未完成이라는 이 工業園地에는 巨大한 精油工場, 製鐵工場, 造船所 等이 活氣찬 鼓動을 울리고 있었다.

關西電力에서는 하루終日 걸리는 스케줄을 짜가지고 筆者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伊藤 支配人의 말을 듣고 技術者도 아닌 사람이 수박겉핥기式 見學에 너무 많은 弊를 끼쳐서야 되겠느냐고 다른 곳의 見學은 辭讓을 하였으나 이미 다 手配가 되어 있으

니 저녁食事만이라도 같이 하자는 懇曲한 勸告만은 이를 辭讓할 道理가 없었다.

〈日本旅行 落穂 몇가지〉

흔히들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말하는 日本國과는 特別히 韓日國交再開 以後로는 사람의 往來가 相當히 많아졌으며 여기에 더하여 배스룸의 發達로 우리는 日本事情에 汰코 生疎하지 않은 것이 事實이다. 또한 3週餘의 짧은 時間을 바쁜 旅程에 쫓긴 나그베의 눈이 어느 程度 正確하고 銳利한 觀察을 할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도 問題가 될 수 있다.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敢히 以下에 『日本旅行 落穂』라고나 할 見聞記 몇가지를 順序없이 늘어놓기로 한 것은 尙重하기 짝이 없는 外貨를 쓰면서 外國旅行을 할 惠澤(?)에 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自己가 보고 들은 外國의 最近 事情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 道理가 아닐까 하는 道義的인 理由와 特別히 우리나라와 日本은 地理的으로 近接한 이웃일 뿐만 아니라 歷史的으로 보아 매우 重大한 影響을 相互間 미쳐온 사이라는 點으로부터도 日本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꼭 바로 認識하여야만 되는 가까운 外國이라는 現實的인 理由에서이다.

(1)

數十年의 風雪과 太陽光線만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검은색 얼굴의 늙은 農夫 한사람. 얼굴의 잔주름과 흰 머리털은 그의 나이 選甲이 벌써 넘었음을 말하여 주나 두툼한 손바닥과 울퉁불퉁한 손마디는 그가 아직 젊은이 못지않은 肉體勞動者임을 말하여 준다. 어색한 노오타이洋服이긴 하나 깨끗한 몸차림이다. 瀬戶內海를 굽어보며 東에서 西로 疾走하는 特急列車 食堂에서 홀로 麥酒를 마시고 있다. 안주로는 그의 젊었을 時節에는 都會地의 特權層이나 間或 먹을 수 있었을 西洋料理 한접시. 窓밖의 여름은 부너우런만 年中空氣調節의 密閉된 特急列車은 시원하기도 하다.

이윽고 麥酒 두병과 안주 한 접시를 充分히 時間을 끌어 玩味한 늙은 農夫는 손짓하여 웨이트레스를 불러 計算을 付託한다. 상냥한 웃음과 더불어 갖다 놓는 거스름돈 몇百圓을 집어넣은 그는 다시 지갑을 꺼낸다. 五百圓券 한장을 톱으로 받은 웨이트레스는 몇번 辭讓하나 늙은이는 거머코 손에 쥐어주고 자리를 뜬다. 웨이트레스의 長格인 亦是 나

이어린 少女가 쫓아와서 全員을 代表하여 鄭重하게 人事를 한다.

언곳으로 시집간 딸네집을 찾아가는 길일까? 도내기를 끝낸 그의 눈에는 멀지않아 기품진 벗짝이 太陽을 向하여 치솟겠지.

가진 苦生을 다 했지만 戰爭에서 살아남기를 千번 萬번 잘했지!! (이것은 톱 500圓을 서슴치 않은 늙은 農夫의 獨白입니다.)

도내기가 거의 끝난 日本의 田圃에는 사람이 別로 눈에 띄지 않고 農家 앞에 小型貨物車나 間或 乘用車가 놓여 있는 車窓 밖의 風景은 의로운 異國의 나그베에게 疎外感마저 안겨준다.

(2)

札幌에서도 東京에서도 그리고 日光, 奈良, 廣島, 別府에서도! 그들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男女數十名의 團體 觀光客들. 中年 또는 老年의 男子는 거의 例外없이 어색한 洋服차림에 草帶가 매달릴까 지 내려와 있고 女子는 相當數가 우리네 八字型 거름의 正反對型이다. 반드시 가이드가 따르고 때로는 그들의 身元을 밝히는 깃발을 들고 徽章도 차고 있다. 가이드의 說明을 매우 熱心히 들으며 치음보는 大都會와 名勝地의 驚異에 눈이 매우 바쁘다.

분문이 모은 돈일망정 農閑期를 利用하여 觀光을 즐기는 그들에게서 목구멍에 꿀칠하기에 바빴던 지난날의 小作人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다. 태어난 아이가 不幸히도 男子일 경우에는 얼른 輸통을 눌러 목숨을 끊었고 多幸히도 女子일 때에는 열 서너살 되기가 무섭게. 東京에서 찾아오는 人肉商人에게 팔아넘겨야만 했던 지난날의 東北地方의 凄絶한 農民悲話를 그들의 즐거운 表情에서 찾아내기란 더욱 어렵다.

(3)

『衣食이足하여야만 禮節을 안다』는 먼옛날의 어떤 知名人士의 말이 아직도 眞理이라면 日本의 接客業從事員은 確實히 배가 부르고 웃겨정이 없는 사람들과 하겠다. 食事란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旅行을 하거나, 宿泊을 하거나—그리고 勿論 電話를 걸거나—언제나 거의 例外없이 상냥한 應待와 恭遜한 말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國民學校成績式으로 採點한다면 秀 50%, 優 30%, 美 15%, 良 4%, 可 1%라고나 할까?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이 恒常 머리를 떠날 수 없고 산다는 것이 지겹기조차 한 사람에게서 微笑와

親切을 期待할 수는 없다. 걸치체가 아닌 몸이 배인 親切한 接客態度가 普遍化되고 있다는 事實은 軍閥 獨裁→戰爭→破壞→敗戰→窮乏→混亂→復興→繁榮의 波瀾萬丈의 日本 最近史를 다시 더듬어 보는 異國의 나그네에게는 日本經濟의 驚異의인 復興相의 한 證言으로만 보였다.

(4)

日曜日. 東京의 繁華街 銀座의 茶百貨店 앞 綠地帶의 圓形 벤치. 분비는 人波에는 아랑곳없이 이제 겨우 高等學校를 나왔을까싶은 젊은아이들이 滋味 있게 무엇인가 먹는 것에 關하여 지껄이고 있다. 머리는 亦是 길게 길러 얼핏 보면 女子아이들 같이 보인다. 理髮所가 어디쯤 있느냐고 물어 물어 물어 서로 相議하고 나서 어딘가에 있는것 같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짧은 머리를 또 깎습니까?」 한다. 筆者가 묻는 말에 「저는 工夫에 趣味가 없어 就職해서 일하고 있고 이머석은 저보다는 머리가 좋아서 大學에 다닙니다」라고 말한다. 들다 귀엽고 상냥하다. 담배 한대 피울 동안 學校 이야기, 職場 이야기 등을 물어보고 「나는 旅行者이어서 東京을 잘 모른다.」 하였더니 「北海道에서 오신 분이군요?」 한다.

「北海道도 다녀왔지만 그곳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九州입니까?」

「아니.」

「?」

「더 먼곳.」

「???!」

「事實은 나는 日本사람이 아니다.」

「!!? 네, 그래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알아 맞혀보게.」

「?? 中國입니까?」

「아니.」

「臺灣이군요?!」

「아니. 더 가까운 곳.」

「그러면 琉球(Ryukyu)군요!」

「???! 아네티...」

여기서 들이는 鳩首하여 소군거려더니

「아! 小笠原(Ogasahara)군요!」

(筆註: 6月末에 美軍政에서 日本으로 返還된 太平洋의 小列島)

「???! 아네티! 外國으로서 아주 가까운 나라가 있지 않은가!!」

「아아! 韓國이군요! 南쪽입니까, 北쪽입니까?」

<日本은 世界有數의 先進工業國으로 成長하였다>

日本은 그 總發電電力量과 國民總生産에 있어 各 各 1966年과 1667年에 마침내 美蘇 兩國 다음가는 世界 第3位의 位置에 올라섰다. 日本의 工業은 造船, 鐵鋼, 電氣機器, 自動車, 세멘트, 化學纖維 등 主要部門에서 世界 第1位 乃至 第3位의 자리를 確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成長의 速度가 他國에 比하여 顯著하게 빠른 趨勢를 보이고 있다.

戰前의 軍國主義 日本이 비록 軍備面에 있어서는 世界의 強大國의 隊列에 끼어들어 他民族을 侵略하고 다칠내는 太平洋戰爭까지 挑發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나 當時의 日本이 基幹産業의 均衡의인 成長이라는 必須의 基礎 위에 세워진 近代의 工業國家가 아니었음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다. 植民地의 收奪, 國民生活의 犧牲強要, 基本人權의 蹂躪等 가진 否定的의 手段을 總動員하여 艱辛히 維持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當時의 日本經濟이고 日本軍國主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日本經濟는 戰前의 半封建의이며 跛行的인 脆弱한 産業構造를 거의 改善하여 近代의 工業國家로서 튼튼한 基礎 위에서 成長을 繼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好不好에는 相關없이 日本이라는 우리의 이웃나라는 『昭和元祿(筆註: 德川幕府 統治下에서 平和와 繁榮을 謳歌하던 一時代)』라는 用語가 過히 어설뜨지 않을 程度로 平和와 繁榮을 享有하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自動車에서 물어본다. 乘用車와 貨物車를 합한 自動車總生産量에 있어 日本은 最近에 마침내 西獨과 英國을 앞질러 美國 다음가는 世界 第2位の 自動車生産國이 되었다고 한다. 이 統計가 가지는 意義는 매우 重要하다. 于先 自動車를(勿論 部分品까지 一切 包含하여) 大量生産할 수 있는 나라라야만 近代의 意味에서 工業國家라고 할수 있다는 點에서 그러하고 다음으로는 모오터리제이션은 流通經濟發達의 促成劑가 되어 人間生活의 水準과 速度를 急速히 끌어올리고 都市와 農村의 隔差를 좁히는데 큰 役割을 한다는 點에서 그러하다.

日本列島를 北에서 西까지 초생달模樣的 코오스로 旅行하는 동안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中古車展示場이었다. 數十臺 또는 數百臺의 中古車가 「사갈 사람을 기다리고 웅크리고 있는 곳인데 大都

시가 아닌 地方의 小都市의 周邊에서도 많이 눈이 띄었다. 우리네 形便으로는 새 차에 가깝다고 우길 수도 있을 상상을 말쑥한 차들도 더러 있었는데 最近의 自動車부흥에 따라 밀정된 自動車를 新型으로 자주 바꾸는 階層이 생겨난데 起因한 現象이라고 한다. 5, 6萬圓 짜리 中古차를 사서 同額 程度의 修理費를 드리면 15萬圓 가량에 팔수 있다는 것은 大阪에서 自動車 써어비스·센터를 經營하는 한 口人 同窓生의 말이었다.

汽車에서 내다본 日本의 하이웨이에는 自動車의 흐름이 실실치 않게 이어지고 있었다. 京濱—中京—阪神의 三大工業地帶 周邊의 有料高速道路나 하이웨이는 勿論이고, 山陽, 北九州 등에서도 그러하였다. 北海道의 東半部, 東北地方, 山陰地方, 九州南部地方 등은 人口密度가 稀薄하고 工業의 集中地가 드물어 東海道—山陽道—北九州를 잇는 日本의 中核地帶와는 그 樣相이 다른 것으로 짐작하나 落後된 道路網도 近年에 많이 整備되고 鋪裝되어 어느 地方都市이건 먼지를 뒤집어쓰지 않고 自動車로 旅行할 수 있게끔은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保有自動車臺數가 千萬을 突破(1967年)하였다니 道路建設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은 分明한 理致이다.

〈大阪 萬國博覽會와 札幌 冬期올림픽大會〉

東京은 1964年의 第16回 올림픽大會를 契機로 競技場施設은 勿論이고 空港施設, 호텔 其他 接客施設, 高速道路, 노노페일에 이르기까지 그 面貌를 一新하였을 程度로 近代化되었다고 들었다. 올림픽이 끝난 後에는 膨脹한 호텔施設 등이 遊休化하지 않을까 念慮하는 慮도 없지 않았으나 每年 數十萬名을 데아리는 外國人 觀光客의 殺到와 生活의 餘裕를 最大限으로 즐기려는 『레저·부음』의 繼續의 人 強勢로 이것은 杞憂에 지나지 않았음이 證明되고 있다.

日本이 國家的인 事業으로서 現在 그 準備에 沒頭하고 있는 大規模의 國際行사가 두가지 있다. 하나는 1970年 3月 15일부터 6個月동안 大阪에서 開催될 日本萬國博覽會(EXPO)이고 다른 하나는 1972年初에 札幌周邊에서 開催될 第11回 冬期올림픽이다.

大阪驛頭 廣場 앞의 큰 百貨店 正面에 色다른 時計板의 비온이 낮이고 밤이고 반짝이고 있다. 아무 데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이 아니고「萬

國博까지 앞으로 ○○○日 ○○時間 ○○分」이라는 時計板 아닌 日時板이다. 街頭에는 萬國博을 宣傳하고 成功시킬 것을 呼訴하는 포스터, 印刷物, 쇼핑백 等等이 汎濫하고 있다. 大阪와 그 周邊을 잇는 高速道路의 建設이 汗창이고 巨大한 빌딩의 鐵骨이 大阪市內 各處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다. 伊丹(Itami) 空港은 새로운 터미널 建設에 汗창이며 延人員 3,000萬名(中 外國人 100萬名)으로 豫想한다는 國內外 觀覽客을 맞아드릴 準備에 大阪은 活氣에 넘쳐 있었다.

大阪城에서 내려다본 工都 大阪市 一帶는 工業地인 海岸地帶 쪽은 亦是 芻蕘계 흐려 있었으나 意外로 먼 곳까지 맑은 眺望이 可能하였다. 日本의 燃料消費構成에 있어 石炭이 凋落하고 油類가 王座를 차지하게 된 德分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第11回 冬期올림픽大會에 對備하는 札幌市 및 北海道의 熱誠 또한 大端하다. 『札幌올림픽을 成功시킵시다』라는 口號는 觀光旅行者를 對象으로 하는 모든 印刷物을 爲始하여 사람의 눈이 많이 쏠릴만한 곳이면 어디에나 나와 있고 日章旗와 五輪마아크에 눈송이 模樣을 配合한 第11回 冬期올림픽 마아크가 벌써 札幌은 勿論이고 全國에 나돌고 있을 程度로 그 準備는 熱을 띠고 있다.

스키이,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봅스레이 其他 各競技의 競技場施設 12個所는 올림픽村으로부터 最短 0.5 Km, 最長 17 Km의 距離에 散在하고 中樞가 될 올림픽村은 各國 選手團 2,000名 以上을 收容할 수 있는 宿舍와 各種 近代의 施設을 整備한 모던한 5層建物 2棟이 中心이 될 것인데 이들 建物은 大會 終了後는 一般市民의 아파아트로써 活用될 것이라고 한다.

人口 90餘萬의 札幌市는 東洋에서는 보기드문 시원스러운 都市計劃으로 建設되고 戰爭時에도 被害를 免한채로 오늘에 이르렀다. 綠色의 잔디가 都心을 東西로 貫通하는 幅 105m의 大通(Oodori) 遺遙地에는 北國特有的의 花畑이 人工의 美와 季節의 꽃으로 사람을 魅惑하고 그 東端에는 높이 147m의 TV 塔이 솟아있고 西쪽으로 가면 63個의 水口에서 높이 6m의 水柱가 噴出하고 밤이 되면 靑, 紅, 黃의 照明을 받아 14가지의 무지개를 그려내는 大噴水가 있는 아름답고도 情다운 都市이다. 4年後의 올림픽까지에는 얼마나 더 變貌할 것인지 궁금한 期待를 걸어볼만 한다.

〈하나의 結論〉

學業成績이 시원치 않은 學生이 優秀한 級友에게 對하여 가지는 態度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가 어찌하여 自己보다 훨씬 優秀한 成績을 올릴 수 있었는가를 分析하고 研究하여 自己의 缺點을 是正하는데 參考로 삼고 奮發努力하는 型이고 다른 하나는 嫉視와 反感에 사로잡혀 非本質的인 缺點찾기와 險談이나 汨沒하다가 마침내는 漸漸 더 벌어지는 成績差에 絶望하고 自棄하는 型이다.

어떤 社會에도 恥部는 있다. 『昭和元祿』을 謳歌하는 先進工業國 日本에도 살의 괴트름이 빚어내는 犯罪와 悲劇은 얼마든지 있음을 筆者도 알고 있다. 따라서 或은 있을 수도 있는 「왜 日本의 좋은 點만 늘어 놓았는가?」라는 善意的 民族主義者 또는 俗物的 쇼오비니스트의 叱責에 對하여 여기서 筆者는 아래와 같이 밝혀들 必要를 느낀다. 即 「다 쓸어져 가는 그늘진 雜居生活地帶에도 TV의 안테나가 술을 이루고 남은 것일망정 冷蔵庫가 좁은 房구석에 도사리고 있으며 工事場에서 물러들어온 日傭勞務者들이 카를리價 높기로 世界的으로 이름난 韓國式 불고기와 麥酒로 點心食事を 始作할 수 있다는 嚴然한 事實을 事實 그대로 直視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先行하여야만 되는 本質的인 課題인 것이다.」라고. 위에서 말한 두가지 類型 中에서 前者에게는 發展이 있을 수 있겠지만 後者에게는 오직 自滅과 墮落이 있을 뿐이라는 것은 아무도 否認못할 分명한 結論이기 때문이다.

無謀하게 挑發한 戰爭에서 마침내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終戰當時의 日本은 다시는 工業國家로서 再起不能이라는 判斷이 나올 수 있을 程度로 極甚한 破壞를 입은 廢墟의 땅이었다. 京都, 奈良等 數個 古蹟 都市의 例外가 있기는 하였지만 本州以南의 主要 産業都市는 거의 잿더미와 瓦礫이 支配하는 荒蕪地로 化해버리고 飢餓線上의 食糧難에 許多한 復員軍人과 歸還難民까지 밀어닥쳐 混亂과 絶望의 交響樂이 坊坊曲曲에 메아리치던 寒心한 고장이 바로 日本이라는 나라였던 것이다.

그러나 奇蹟은 이러한 것이다. 아니, 物理學的으로 奇蹟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奇蹟아닌 奇蹟』이 일어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美蘇冷戰이라는 二次大戰 以後의 世界史의 基本潮流가 日本의 復興에 原動機的인 役割을 하게 되었으며 韓國戰爭이라는 우리 역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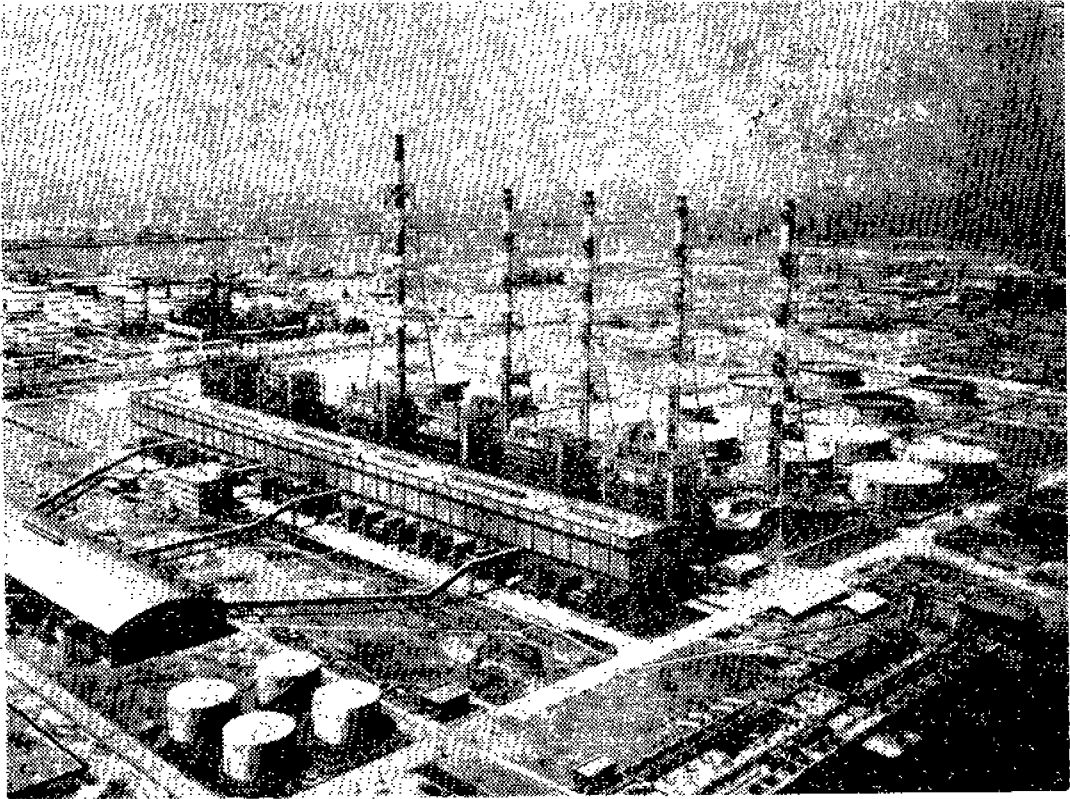
悲劇이 그들에게는 特需景氣를 불러이르켜 오늘날의 繁榮과 豊饒로의 轉換點이 되었다는 것은 世上이 다 아는 事實이다.

酷毒한 日帝의 鐵鎖로부터 解放은 되었으나 國土 兩斷이라는 致命的인 罅를 他意的으로 뒤집어 세워진 메다가 共產北傀의 不法南侵으로 우리의 韓半島가 온동 불바다가 되고 우리의 同胞가 피를 뿌리고 數없이 죽어가던 그 時節이 바로 混亂과 窮乏에서 饒幸이던 日本人의 눈망울에 生生한 光彩가 되 돌아오고 空虛하던 가슴에 다시 希望의 불꽃이 타오르게 된 時點이었음을 想起하면 오직 歷史의 아이러니에 苦笑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日本人 自身이 先天的으로 간직하고 있던 몇가지 長點이 이터한 有利한 外的條件을 十二分 捕捉하고 活用하는데 큰 役割을 하였음을 우리는 看過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의 精力的인 勤勉性, 職務에 對한 忠實性, 一旦有事時의 團結性, 國利追求의 敏捷性 等은 그들의 몇가지 缺點을 相殺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日本이 오늘날의 繁榮을 이룩하는데 큰 役割을 하였다고 筆者는 보는 것이다.

여기서 筆者는 아래와 같은 歷史的인 事實을 想起하게 된다. 即 아름답고도 禮儀바르기로 이름높았던 東方의 어떤 나라에서 兩班이라는 이름의 알량한 엘리트들이 이 世上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基本課題에는 눈을 가리고 나라를 다스린답시고 黨派싸움이나 일삼고 私腹제우기에나 汲汲하여 불쌍한 百姓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헛되게 흐르고 있던 1世紀前 그 옛날에 약삭빠르고 부지런한 日本사람들은 이미 西洋物質文明導入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近代國家建設事業에 손을 대기 始作하였다는 事實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挫折感이나 絶望感을 우리에게 안겨줄 만큼 그렇게 決定的인 事實은 決코 될 수 없을 것이며 또 되어서도 안되겠다.

個人이건 民族이건 人間의 生命은 尊嚴한 것이며 連綿히 이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人間의 尊嚴性이 保障되는 豊饒하고 自由로운 社會를 이룩하기 爲하여 各自 맡은 分野에서 努力할 權利와 義務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後孫으로부터 『못난 祖上』이라는 辱된 稱號를 선사받기를 願치 않는다면 이 權利와 義務는 무엇보다도 貴重한 것으로 認識되고 尊重되어야 할 것을 附言하면서 『본대로 느낀대로』의 日本紀行의 끝을 맺는다.



〈堺港火力發電所(關西電力) 全景〉

【電氣協會誌 廣告의 種別 및 廣告料】

種別號	種別	紙質	印刷	版型	廣告料(원)
A	表紙 4 面 (뒤表紙外面)	아트紙	2 度刷	46倍版全面	36,000
B	表紙 2 面 (앞表紙內面)	同上	1 度刷	同上	22,000
C	表紙 3 面 (뒤表紙內面)	同上	同上	同上	18,000
D-1	誌頭 (目次앞)	模造紙	同上	同上	15,000~ 12,000
D-2	同上	同上	同上	46倍版半面	6,000

(p. 42에서 繼續)

建設된 이 發電所는 캐나다에 있어서의 最初의 商業規模 原子力發電所이다.

Douglas Point 다음에 運轉에 들어갈 豫定의 것은 Toronto 近處의 Pickering 發電所이다. 500 Mwe의 CANDU-PHW 爐 2基를 가지고 1971年 後半에 運轉에 들어갈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거의 같은 時期에

CANDU-BLW 原型發電所 250Mwe 가 St. Lawrence 江南岸 Quebec 州의 Gently 近處에서 運轉을 開始할 豫定이다.

1967年 以後에 發注될 原子力發電所에 關하여는 明確한 資料가 없으나 캐나다에 있어서도 今後 더욱 原子力發電所의 開發이 促進될 것으로 생각된다.